

전남 영농철 인력 수급 전방위 대응

농작업 필요 인력 46만명 추산...道, 상황실·영농작업반 등 가동 도농인력증개플랫폼, 농가-구직자 연결...다음달 계절근로자 입국

봄철 영농기를 맞은 전남 농촌지역에 정상적인 농작업을 위해 46만 여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는 '농촌인력수급 지원계획'을 세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37개 농촌인력증개센터 영농작업반을 모두 가동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대상 농작업은 양파·마늘 수확, 고추·고구마 모종 옮겨심기(정식), 배추·나물(적과)와 봉지 씌우기 등이다. 이들 작물의 전남 재배 면적은 총 1만741ha로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약 46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현재 '봄철 농번기 인력지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도·시·군·농협 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실은 농작업 진행과 인력수급 현황, 인건비 상승 동향을 점검하고 시·군 인력 운영을 조정한다.

또 농촌인력증개센터를 34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고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농작업반을 3500명으로 확대해 인력증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청년·은퇴자 등 도시지역 유류 인력을 확보해 농촌일자리를 알선할 예정이다. 인접 시·군 간 농작업반을 상호교류 투입해 중개 범위도 확대한다.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이뤄지는 무료 중개, 작업반 수송, 간식비·상해보험료 지원 등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도농인력증개플랫폼(www.agriwork.kr)'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 분야 구직자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도농인력증개플랫폼'을 검색해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고, 실시간 문자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도농인력증개플랫폼'에서 근로 지역, 농작업 종류, 임금 수준, 근로 조건 등 정보를 등록하거나, 농촌인력증개센터에 신청하면 필요 인력을 구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코로나19 기간 입국이 제한돼 크게 줄었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역대 최대로 입국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12월 말 19개 시·군 총 640농가에 지난해 706명보다 3.1배 많은 2274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해남 102명, 담양 49명, 나주 46명 입국을 시작으로 농업 분야에 근로할 1000여 명이 입국 준비 중이다.

하루 단위 단기 고용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 지원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첫 시행하는 나주·고흥도 외국인 근로자가 4월 말 입국한다. 외국인 유학생도 4월 중 도와 시·군, 도내 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해 농가 인력지원에 나선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매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데다 인건비는 상승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활용, 농작업반과 도시 유류 인력을 지속 확보해 인력 수급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월의 '벚꽃 엔딩' 30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 꽃잎이 떨어지는 벚나무 아래에서 시민들이 잔디밭에 앉아 도란도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안 첫 관문 통과

지구단위 계획 입안 동의...市, 교통 대책·주차장 등 8개 조항 조건부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안이 조건부로 첫 번째 행정절차를 통과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자문회의를 열어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 계획 주민 제안) 입안에 8개 조항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주변 교통 대책 등을 요구했으며 신세계 측은 당시 요구 사항을 반영해 재차문 끝에 입안 결정을 받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입안 조건으로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전차 충전시

설과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일방으로 계획된 주변 일부 도로를 양방향으로 변경하고 양측에 보도를 설치해 공공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세계에서 설치할 지하차도의 기부채납, 기존 육교 철거, 응급·화재 등 비상 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 확장,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모두 8개 조건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주민 의견 청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건들이 이행됐는지 판단해 지

구단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옛 모텔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백화점 주변 83m 길이 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대신 117m 길이 대체 도로를 신설해 도로를 '-'자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480m 길이 왕복 4차선 지하차도를 건립하는 공공 기여 방안도 제안했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을 중심으로 신세계백화점 확장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장년세대 일자리 대폭 확대

'빛고를 50+일자리' 참여자 360명 모집 역대 최대

광주시가 장년 세대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생애전환기 장년세대(만 45~64세) 일자리 사업인 '빛고를 50+일자리' 사업에 13억 5200만원을 투입,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 36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빛고를 50+일자리'는 장년세대가 은퇴 후에도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시설, 전통시장,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인생 2막의 기회를 얻고, 매달 52시간 기준(원칙)으로 월 60만~65만원의 활동

비를 지원 받는다. 활동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소 5개월에서 9개월 정도다. 올해는 광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한 ▲탐색한 광주아이 키움 지원단 ▲50+문화시설 지원단 ▲꽃잠도시 광주 온라인 홍보 지원단 ▲전통시장 안전 서포터즈 ▲50+안전산행 지원단 등 총 9개 사업단이 3~4월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 초 발대식을 갖는다. 광주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년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인원을 당초 160명에서 360명으로 확대하고 인건비도 광주형 생활임금으

로 상향(9000→1만1930원/시간당) 조정했다. '빛고를 50+일자리' 사업은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시장정책 지원과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참여기관 모두 호응도가 높고 행정서비스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처음으로 빛고를 50+일자리를 시행한 이후 해마다 시장 정책방향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해 규모를 늘려 왔으며, 지난 4년간 1252명의 장년층이 빛고를50+일자리를 통해 인생 전환기를 준비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빛고를50플러스' 포털(http://www.gj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 문의는 '빛고를50+센터'(062-228-5050)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농업·법률·경제 정책고문 신규 위촉

농협중앙회 유치·로컬콘텐츠 육성 등 현안 해결 기대

전남도가 30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이준보 전 광주검찰청 검사장,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신규 정책고문으로 위촉했다. 김병원 전 회장은 나주 출신으로 제23대 농협중앙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한국 최초로 협동조합계의 노벨상인 영국 로치데일 공정개혁자상을 수상할 정도로 국내외 명망이 높다. 최근 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 유치, 인공지능(AI) 농생명밸리 조성 등 농업 분야 현안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보 변호사는 강진 출신으로 20여 년간 강력

·공안·특수 분야 등 검찰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광주·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김장리는 외국인 투자, 공정거래, 환경 등 기업 법률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민자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영준 센터장은 보성 출신으로 GS칼텍스, ㈜해양도시가스 사장을 역임했다. 2015년 센터 출범부터 현재까지 8년여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자타공인 창업 전문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